

왜 우리는 함께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함께 공부할 것인가?

- 장애학생 인권 보장 및 소통과 기술 -

2020. 7.

시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 한 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2.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신고전화 1644-8295

사회적 비교와 명명은 편견을 강화한다.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레베카 비글러의 실험”

- 여름캠프에 참석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무작위로 노란색 셔츠와 파란색 셔츠를 입게 한 후, 아이들을 색깔에 따라 다르게 대우.
- 교사로 하여금 특정 집단을 선호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함. “(노란셔츠 집단에게) 너희는 정말 그림을 잘그리는구나”
- 캠프 종료 후, 집단에 대한 선호도 조사시 교사가 칭찬했던 집단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상승하는 결과 발생.
- 반대로 담당 교사가 특정 집단에 대한 명명이나 선호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 아이들에게선 배타적인 특성과 특정 집단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지 않는 결과 발생

장애란 무엇인가?



미국의 Ugly Law

1880년대부터 1970년 즈음까지, 미국의 다양한 주에 있었던 법률로 부랑자, 장애인 등이 공공 장소에 나타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던 법.

(경찰에 연행되는 장애인 / 시카고 트리뷴 기사 발췌. 16. 6. 23)

사회 속의 장애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의 장애분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 정신)

사회 속의 장애

대법원의 '틱장애'(투렛증후군)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장애란,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

즉,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가 규정되는 것.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 "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법 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학교폭력의 예시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 장난을 빙자한 고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글을 퍼뜨리는 행위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 하거나 글을 퍼뜨리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기, 비웃기
-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 성적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특정인의 허위 글이나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SNS 포함)
-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 보호조치 실시 !

장애 학생의 인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 사례1

영수(가명)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으로 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다.

영수는 같은 반 친구로부터 약 6개월 동안 매일 쉬는 시간에 뺨 때리기, 현금 갈취 등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 영수의 부모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자 교사는 이미 봄에 학교폭력에 대한 상황을 알고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받았으며, 2학기에도 다시 사과문을 받았다고 했다.

영수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를 통하여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전학 조치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학폭위 과정에서 학부모운영위원이 "왜 지금까지 영수를 도움반에 보내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였고, 가해자 부모는 "왜 자기 애를 영수 옆에 앉혀서 이런 일을 발생케 했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 사례1

학폭위 조사과정에서는 가해학생을 한 사람씩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가해학생 전원을 한꺼번에 불러서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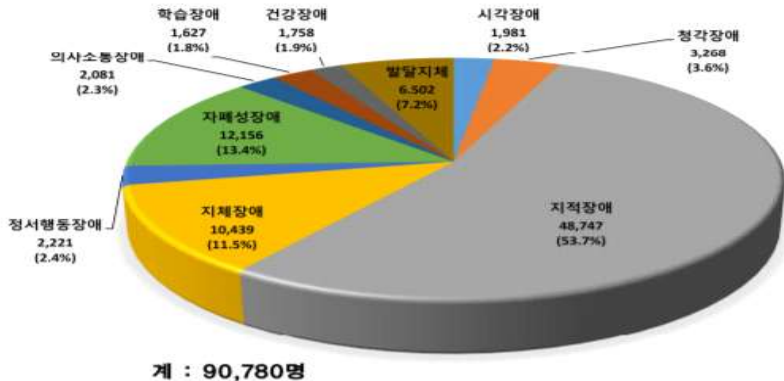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담임지도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1학기 때는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방학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학년이 바뀌면 다른 반으로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평소 학교는 도움반 지원 인력을 도서관 사서로 쓰거나, 도움반 교사에게 "가급적이면 통합반으로 올려보내지 말라"며 영수를 도움반에서만 수업을 받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사례1 –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수차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
- 수차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점
-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학부모 운영위원
- 장애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가해자 부모
- 개별 조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안조사과정
- 특수교육보조인력을 정해진 목적 외의 업무에 배치함으로 인해, 충분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학생의 상황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학교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일이 없었던 학교

특수교육 현장 (교육부, 2018 특수교육통계)



발달장애: 다양한 정의가 존재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상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016)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일치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발달기 이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중추신경계 혹은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운동능력 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상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지적장애, 학습장애, 뇌성마비, 자폐성장애,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발달장애 이해, 2016)

발달장애의 법적정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함.

-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필벽의 『자라지 않는 아이』 중에서

사람은 결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능에 장애를 입고 말을 못해서 의사 소통을 잘 못 할지언정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시설(장애인 시설)을 보러 갔을 때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무서운 장면을 본 일이 있습니다.

시설의 원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시설을 찾아 갔는데 시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전 아이들보다 지능이 높은가요?”

“아니오, 거의 모두 그전부터 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것도 가르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조금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안되면 조금 도와주면 되지요.”

필벽의 『자라지 않는 아이』 중에서

“이 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지적능력의 발달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기에 이 아이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 곳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지요?”

“이 아이들을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문헌

- 김진우, 2014, 『발달장애인복지론』, EM커뮤니티
- 김삼섭 외 2인, 2016, 『발달장애 이해』, 학지사
- 나카노 노부코, 2018,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 정윤수 외 5인, 2018, 『인간은 왜 폭력을 행사하는가?』, 철수와 영희
- 필백, 2002, 『자라지 않는 아이』, 샘터
- 교육부, 2020, "2020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2018, "2018 특수교육 통계"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18,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2019 장애통계연보"